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정당”

‘조건부 개원 허가’ 놓고 中 녹지, 제주도 상대 소송 1심은 녹지 승소... 어제 항소심서 1심 판결 파기 재판부 “국민 보건 의료 위한 공익 목적 존중돼야”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때 보건 의료 체계에 미칠 불확실한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비해야 하는 행정적

재량적 판단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며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는 국민 보건 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돼 있어 이 사건의 허가 조건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의료법과 응급 의료법의 진료 거부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녹지제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허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병원측이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위법성이 조각(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된다”며 의료

법과 응급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도에 대해 “현행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상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제주도지사에게 설정한 예외적인(강화상) 특허”라며 “도지사 재량에 따라 개설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도의 성격을 ‘기속재량행위’로 본 1심의 판단과 180도 다른 것이다. 기속적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이 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의미로 원칙적으로 법적 요건만 갖추면 ‘부관(조건)’을 붙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조건을 달 수 있다고 해도 그 조건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1심은 “제주특별법에 진료 대상

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며 영리병원 제도를 기속적 재량행위로 규정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이번 법적 다툼의 최종 향방은 대법원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자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2심 판결 직후 논평을 발표해 “이번 판결은 영리병원이 공공 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며 “그동안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 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오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공방 예고 지사 측 3월 22일 법정 출석... 검찰, 증인 38명 신청

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을 대거 신청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오영훈 지사와 정무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장과 김도 대표 A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으로 38명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 등 대부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공소 사실을 입증하려면 신청한 증인 대다수를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 기소 후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매달 2차례씩 공판을 갖기로 했다. 오 지사 등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은 오는 3월 22일로 예정됐다.

오 지사 측은 이날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대해 전날 밤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돼 협약식을 열기로 미리 모의한 적이 없고 이를 홍보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건설팀 비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으며,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홍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지 선언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지사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도내 단체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상민기자

제주시 위생업소 행정처분 작년 310곳... 22건은 고발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 310개소에 대해 불법 영업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등 31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는 217개소로 영업주 또는 종업원 건강진단 미이행 53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음식물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39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유통식품 관련 위반 사항은 85개소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판매한 경우 15개소, 식품 등에 이물 등이 혼입된 경우 14개소, 부당한 광고 표시 또는 표시 기준 위반 13개소 등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어묵, 분식류 등 음식을 조리·판매한 행위 등 무신고 영업 행위 22건에 대해선 형사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진선희기자



비 오는 날 도두봉 산책 비가 내린 15일 제주시 도두봉을 찾은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산책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현수막 훼손 70대 입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을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

의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제주시 삼도1동 제2오라교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지지역위원회의 ‘윤석열 정권 민생을 짓밟지 말라!’는 현수

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 훼손 사실을 알게 된 더불어민주당 측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됐으며 A씨는 14일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서귀포시 소재 한 조합의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15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등 385명에게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

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돈 선거’ 근절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 이날 밝혔다.

또 위법행위 발견시 도선관위 지도과(064-723-1390)나 전국 어디서나 전화(1390번)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미숙기자

“지인 비공개 재판 강행 대법원은 판사 징계하라” 제주참여환경연대 논평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피고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선고재판을 강행한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대해 징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지난해 3월 우리 단체는 해당 판사에 대해 징계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

을 대법원에 제출했고 대법원은 ‘주의’ 조치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그 후 해당 판사에 대한 어떠한 징계 절차도 확인할 수 없었고 사과도 받을 수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해당 판사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대법원은 명백한 위헌과 위법을 자행한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사법 불신을 유발한 그간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도영기자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향량 및 높기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카리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귤, 팔삭, 세이늘,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문의: 010-7204-1286)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협최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010-7204.128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중자업등록번호 제 18-서귀포-2021-20-02 호

우량 감귤묘목

우수한 품질의 감귤묘목만 생산하여 직접 판매합니다

레드향 · 천혜향 · 황금향
한라봉 · 공천
오하라베니 · 조경용 하귤

※ 현장방문 환영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68-168

제주감귤묘목영농조합법인
010.7204.1286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아스미 6년생
·유라실생 4,5년생	·한라봉 2,3년생
·공천 3,5년생	·황금향 2년생
·레드향 2,3,5년생	·하례조생 4년생
·천혜향 2년생	·레몬 4년생
·하귤 4,5년생	·탕자묘목 2년생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중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 010-2699-2355